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11-24, 누가복음 1:5-20

최정웅 목사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왔으니 받아 주시며,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과,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에게 성령충만과 인도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청지기주일이고,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는 중인데, 6장 이하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 시대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대의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IMF를 지나보지 않았는가? 위기의 조짐이 다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개인과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었다.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가 붕괴될 그때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때가 늦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반 나치 운동을 벌였던 마틴 니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가 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가톨릭교도들을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대의 위기는 곧 나와 우리 자녀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현장과 시대가 조금씩 위기로 가고 있지만, 전부 자기 이익을 두고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양보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가 정치 투쟁을 하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에 위상이 확산되는데, 흑암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종교통합운동을 못 막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이고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영적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반드시 시대와 현장에는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다. 사사기 6:10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문제가 온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

1.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 공부를 하지는 것이 아니다. 기드온이 살던 사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다.

(1)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행복한 것이다. 물고기의 생명이 물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행복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속임수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그래서 완전히 죽고 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 것이나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다.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계속 하니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멸망하는 시대와 개인을 살리고 우상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길은,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사사기 시대에 문제가 왔는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언약 가진 자, 피 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원색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고, 이 문제를 살릴 길을 분명히 붙잡기를 원하신다. 전 세계에 가득한 재앙을 꺾을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멸망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회복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시대를 살리는 해답이다. 이 시대의 요청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 곧 천명이라고 한다.

(2)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형상우상, 사상우상, 물질우상, 교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미디안 나라의 공격이라는 전쟁과 재앙을 막는

열쇠는, 사사기 6:8에서 시작되었다. 한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천명이다.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가? 오직 전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오늘 사명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한다. 왜 그런가? 완전히 위상으로 멸망 속에 있는 애굽을 살릴 자가, 많은 전략과 전술, 잔꾀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정치가가 아니었다. 경제인들이 아니었다.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있음으로 애굽과 전세계가 살게 되었다. 중세가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을 때, 위대한 교황이 일어나서 해결했던 것이 아니다. 임금과 왕들, 정치가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깨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일어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중세가 뒤집어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과 사회, 테러가 심해지는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예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지 않나? 이분이 하신 이야기다. “목사님, 국회의원 열 명만 마음이 맞으면 정말 국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20명의 국회의원이 정말 마음이 하나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하고 믿음이 좋다 하는 게 아니었다. 정말 믿음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현장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천명 가진,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3)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이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라는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아니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큰 용사여!”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큰 용사라 하시는 것이다. 모든 일이 안 된다고 탄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을 위해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성령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된다. 교사 40명을 어린이부에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말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회의 부탁, 목회자의 부탁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사사기 6:12에, “여호와의 사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을 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나를 바로 큰 용사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부르셨다(calling). 오늘은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이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났지 않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시기를 축원한다. 2016년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자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말은 일과 현장 속에서, 자신의 천명 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그것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왔다가 가는 사람.

2.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방법

“하나님,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 천명이 있습니까?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용사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하는데 말이다. 능력도 지식도 가진 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겨우 교회 왔다갔다 하는데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그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오늘 붙잡게 되기를 축원한다. 제직원들은 다 붙잡아라. 내가 의정부 금오교회에 부임했을 때다.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을 때였다. 나이 서른 살 젊은 목회자일 때였다. 전임 목사님 네 사람이 쫓겨났던 교회였다. 거기에서 처음 부임한 후에 바로 광고했다. 1주일 동안 제직세미나를 할 테니 다 나오라고 했다. 월요일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나, 한 사람도 말을 듣지 않는데. 그만두고 가야 하나.' 다음날 또 7시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 오기로 자기들끼리 약속이라도 한 것인가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목회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먹고 다시 해 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제직원을 임명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제직원들이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종파티를 합시다." 그렇게 다시 광고를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작년에 이 광고를 똑같이 하고 여러분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이라도 오세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지금은 화를 내면서 말하지만. (웃음)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하는데, 100%가 참석한 것이다. 아마 미안했던 모양이다. 1년 동안 목회가 성공했다는 의미였나보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제직의 의미, 집사와 장로의 역할, 이런 것을 1주일 동안 꼭 이야기했다. 30, 40명 되는 숫자인데 끝까지 너무 잘 들었다. 마치고 토요일에 모여서 평가회를 했다. 떡이라도 하자 했더니 진짜 준비를 해 왔다. 차를 마시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이야기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 설립한 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있었던 어떤 부흥회보다 더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른다. "왜 젊은 교역자를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다 배웠지 않나. 50여 개 요람과 주보를 모아서 연구하고 제자수련회를 했는데, 이것이 주변 교회까지 다 소문이 났다. 그때부터 강사로 다니게 되었다. 자,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1)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인 방법 중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마태복음 28:20에 뭐라고 했는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겁이 나는가? 무엇이 안 되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이 길지만, 이 문장 전체를 제목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과 특히 램턴트들에게, 세상은 만 가지 말을 하면서 불신앙을 심고 인본주의를 집어넣는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속지 마라.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7:14의 말씀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가복음 3:13-15을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마다 다 승리했다. 이것을 붙잡지 않고 자기 능력, 재주, 고집으로 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다(시23:4). 암마누엘이 최고의 방법이며 최고의 해답이다. 공부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직장을, 사업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기도하라. 사사기 6:16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 암마누엘을 의지하라. 요일4:4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그는 신 중의 신이시며 주 중의 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된다." 스가랴 4:6, 사도행전 1:8의 말씀이다.

(2) 두 번째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항상 표징을 주신다.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증거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하지 마라. 기드온처럼, '증거를 주셔야 증인 될 것 아니니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라. 하나님은 램턴트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미련하게도 지혜롭게도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기드온이 감히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인 증거를 주셨다. 작은 증거라도 하나님께 요청해 보라. 나에게도 증거를 달라고 해 보라. 쓸 데 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명 소명 사명 주셨다면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증거를 주시면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확증을 받은 다음에 기드온은 증인이 되었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붙잡은 것이 맞는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계

속 확증해 보아야 한다. 신약 본문의 사기라도 중요한 사명을 듣고 하나님께 확증을 받았다. "못 믿겠다? 증거를 주겠다. 너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 하게 될 것이다."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입을 여신다.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증거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한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돌봐 주지 않아도,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증거를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는가? 행 1:4-8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응답받은 사람은 말할 수 있다.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다. 이때 증거가 임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찬만을 받는 개인화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3) 세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흑암과 싸우는 실질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기드온이 중요한 실질을 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천했다. 이것이 '여호와 살롬'이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한 번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사람이 딱 하나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현장으로 가서 실천했다. 기드온이 가서 밤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수고 회색 제사를 회복했다.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바알과 싸운다는 의미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런 별명이 여러분에게도 생기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실천이다. 이번 주에 당장 흑암 문화를 깨뜨리는 중요한 실질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 캠프다. 그리고 2016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훈련 스케줄이 있다. 나는 23년째 계속 훈련을 받고 있다. 나와 동갑인 김동권 목사님은 80세까지 훈련받고, 그때부터 본 게임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일이 된다. '나는 안 받을 거야.' 얼마나 받았는데 그러는가? 정말 훈련받아보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맛을 보라.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이 응답에 주역이 되어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부터 온다. 이번 주간, 연말을 맞이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영성을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회복하시기를 축원한다. 이 시간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빈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빌 게이츠는 1년에 1주일 동안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생각하는 주간을 가진다고 한다. 불신자를 뛰어넘는 빈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을 누리는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도록 무릎을 꿇어 보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떤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직업도 없이, 거지로, 언어먹으면서 노랑이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라. 나는 응답을 받아 보았다. 직장을 구해 보려고 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쉬게 해 주는 회사가 없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해 봐라. 리어카도 못 끌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느냐?"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리어카를 끌고 나서자마자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당장 창피를 당했더니 부끄러운 게 없어졌다. 딱 두 달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돈벼락을 때려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지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다. 이때 오는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란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번 주간에 꼭 듣게 되기를 바란다. 제직원들 때문에 교역자들이 행복하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교회 옆에 큰 교회가 왔다. 이야기가 많은 교회다. (그래서인지) 이름을 큰믿음교회에서 사랑교회로 바꾼다고 한다. 우리는 참사랑인데. (웃음) 부딪혀 보자. 겁내지 마라. 포복절도 꼭 있어야 장사가 되지 않나? (웃음) 잘 된 것이다. 진짜가 누구인지 해 보자. 승리하시기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헛된 삶을 살았더라도, 며칠 남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드온처럼 기도하다가 증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 맞다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때문에 민족, 지역이 살고 세계에 증거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